

1910년대 이광수의 해외체험 연구*

김 미 영**

[국문초록]

이 글은 이광수의 1910년대 해외체험이 조선개혁론 구상에 미친 영향을 살핀 것이다. 이광수는 1913~1914년에 상해, 해삼위, 치타(시베리아)를 여행하였고, 1915~1918년에 동경에서 2차 유학을 하였다. 이 글은 당시의 기행문들과 나중에 그때의 해외체험을 상세히 기록한 자전적 소설과 고백록, 여행지에서 썼던 조선동포에게 주는 글 등을 분석하였다. 20대의 청년 이광수에게 1910년대 해외체험은 ‘세계’를 보는 시각을 부여했고, ‘조선’을 객관화시켜 보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중국에서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나 국민에의 예우는 그 나라의 문명화 단계에 좌우됨을 목도했고, 러시아에서 조선이주민들의 가난과 지식인 망명객들의 당파싸움을 보았다. 그는 북방 방랑길에서 조선의 자주적 독립에의 가능성을 찾지 못했는데, 당시에 그가 쓴 글들에 탈식민적 의지가 퇴색해 있음은 이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대국에서 그는 조선이 소국임을 절감했다. 조선을 벗어나고자 북방으로 갔으나 그는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2학기 홍익대학교 신입교수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홍익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주제어: 이광수, 해외체험, 기행문, 문명론, 문화론, 후쿠자와 유키치, 탈식민적의식, 진화론.
Lee Kwangsoo, travels abroad, travel sketches, Fuguzawa Yugichi, post-colonialism,
theory of civilization, evolutionism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조선인임도 통감했다. 1915년 이후 2차 동경유학에서는 일본근대문명이 세계적 수준임을 깨달았고, 진화론적 세계관과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에 침윤되었다. 1918년 해외체류를 마치고 귀국할 무렵, 『무정』의 성공에 고무된 그는 「우리의 이상」에서 조선사회의 개혁방향을 국가 단위의 문명화에서 지역 단위의 문화론으로 전회한다. 이는 그가 2차 유학에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과 오카 아사지로의 진화론적 세계인식을 익혔으나, 1910년대 실제 북방으로의 방랑과 해외체류 등에서 국가 간 ‘약육강식’의 현장을 목도하는 중에, ‘약육강식’의 세계정세 속에서 ‘독립’을 말할 수 없는 ‘약자’인 조선은, ‘문화’를 통한 ‘민족의 보존’에 매진함으로써, 진화론의 한 원칙인 ‘적자생존’의 논리에서 ‘적자’로서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 끝내 미래의 어느 날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을 말살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길임을 직감한 때문으로 보인다. 진화론적 세계관에 비추어 보아도, 민족의 ‘생존’은 ‘독립’의 전제일 뿐 아니라, ‘독립’ 자체보다 중요한 ‘목적’임을 그는 해외체험에서 통찰했던 것이다.

1. 문제의식

이광수(1892~1950)는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조선의 명산·유적지·도시와 동경, 상해, 북경, 해삼위, 북만주, 시베리아를 여행하여 많은 기행문들을 남겼다.¹⁾ 이 논문은 이들 가운데 그가 1913~1918년(22세

1) 1910년대 이광수 기행문에 관한 연구성과물 가운데, 우선 김경미는 1910년대 이광수의 여행기들에는 근대문명을 제국의 식민화를 가능케 한 실질적 힘인 동시에 조선이 제국의 통치권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로 양가적으로 이해한 이광수가 드러나 있다고 말한다. 김경미(2012.12), 「이광수 기행문의 인식구조와 민족담론의 양상」,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62호, pp. 280-281. 『오도답파여행』을 중심으로 한 이광수의 1910년대 국내기행문에 대해 김경남은,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후 3.1운동 무렵까지 조선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발전적’이었다는 사실을 조선인의 시각에서 재확인해주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총독부가 주관한 시찰단이나 관광단의 명승고적답사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광수는 단순히 승경

~26세)경 상해, 해삼위, 치타, 시베리아, 동경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체류한 경험과 관련된 글들을 분석하여, 20대의 이광수가 국제정세나 외국의 문명과 문화,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조선의 발전방안에 대해 어떤 구상을 내놓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피려 한다.²⁾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1910년대 이광수의 해외기행문 「상해(上海)서」, 「해삼위(海參威)로서」, 「동경잡신」(東京雜信), 「동경화신」(東京花信), 「동경(東京)에서 경성(京城)까지」와³⁾ 자전소설 『그의 자서전』, 참회록인 『나의 고백』, 시베리아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유정」과 로령에서 쓴 동포에게 주는 논설문 등이다.

1910년에 일본유학을 마친 이광수는 약 4년간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당시 그의 생각은 1913년에 펴낸 『검둥이의 설움』이란 변안소설에 잘 나타나 있다. 『인자박애의 이야기』을 번역저본으로 하고 『노예 톰』을 참고해서 낸 『검둥이의 설움』은 흑인 노예의 이야기를 다룬 『앵글 톰스 캐빈』(1852)의 번역작에 해당한다. 이 작품에서 그는 자유를 얻기 위한 노예들의 투쟁을 ‘거룩한 싸움’이라 표현하고, 식민지 조선인들의 울분을 이입시켰다.³⁾ 그런 그가 1917년에 『매일신보』에 연재한 『무정』에서

과 고적을 구경하는 데서 나아가, 민족적 긍지의 근원을 보려하였고, 조선을 발전시킬 인재를 찾고자 한 점에서 그것들을 넘어선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김경남(2013.6), 「1910년대 기행담론과 기행문의 성격」, 『인문과학연구』 37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87.

- 2) 이광수가 1910년대에 쓴 기행문은 11편이다. 발표순으로 보면, ①「여행잡감」(『신한자유중』, 1910.4), ②「상해서」(『청춘』 3-4호, 1914.12-1915.1), ③「해삼위로서」(『청춘』 6호, 1915.3), ④「대구에서」(『매일신보』, 1916.9.22-23), ⑤「동경잡신」(『매일신보』, 1916.9.27-11.9), ⑥「동경화신」(『매일신보』, 1917.4.17-4.27), ⑦「동경에서 경성까지」(『청춘』 9호, 1917.7), ⑧「오도답파여행」(『매일신보』, 1917.6.26-1919.2), ⑨「오도답파여행」(『경성일보』, 1917.7) ⑩「차중잡감」외 2편(『경성일보』, 1918.3) ⑪「남유잡감」(『청춘』 14호, 1918.6)이다. 국내기행문은 ③, ⑥, ⑧이고, 나머지는 해외기행문들이다. ①⑦⑩은 조선과 일본을 오가면서 쓴 순수한 기행문들이며, ①⑨⑩은 일본어로 발표되었다.

- 3) 이광수(1913), 『검둥이의 설움』, 박진영 편(2011), 『신문관 번역 소설 전집』, 소명출판,

조선의 문명화를 위한 청년들의 계몽적 열정을 강조하였고, 해외주유를 마칠 무렵인 1917년 12월에 『학지광』에 발표한 「우리의 이상」에서는 조선개혁의 향방을 문명화에서 민족문화의 보존과 발전, 즉, 문화론으로 선회하였다. 또 1918년 10월 『매일신보』에 연재한 「신생활론」에서는 진화론적 세계관에 기초하면서도 인간의 변화는 의지적 노력에 의한 인위적 진화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1910년대 초에서 1910년대 말까지 이광수의 사유는 급격히 변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1910년대 초, 식민지 청년의 막연한 울분에서 1910년대 중반, 국가 단위의 문명화 논의를 거쳐, 1910년대 말, 지역사회 단위의 문화론으로 조선의 향방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이 조선민족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변화여야 조선 지역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이 변화는 1913년부터 그가 해외에서 목도하고 체험하고 공부한 것들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 1913년 말 이광수가 북방으로 방랑길에 나선 이유

이광수의 첫 해외경험은 1905년 8월(14세)부터 1910년 3월(19세)까지 그가 일진회(천도교)의 유학생에 선발되어 동경 명치학원 보통부 중학 5년 과정을 마친 것이다.⁴⁾ 두 번째 이국체험은, 1913년 말 ‘상해’에서 출발하여 1914년 8월까지 북방지역을 방랑한 것이며, 세 번째는 1915년에서 1918년(22세에서 27세)까지의 2차 동경유학이고, 네 번째는 1918년 말에 허영숙과의 연애문제로 북경으로 도피한 것을 시작으로 1919년에 동경과 상해, 북경과 경성을 오가는 여정을 이어간 것이다.⁵⁾ 이 글에서

p. 268.

4) 이광수(1979), 『이광수전집 별권-화보·평전·연보』, 우신사, p. 156.

5) 박계주·곽학송 공저(1962), 『춘원 이광수-그의 생애·문학·사상』, 삼중당, pp.

다를 1910년대 이광수의 해외체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것들이다. 1918년 이후 그의 해외여행은 뚜렷한 필요와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1919년 조선청년독립단선언서를 기초하였고, 1920년 이후 흥사단 관련 일을 하였다. 이 글에서 다룰 그의 1910년대 해외체험은 1913~1918년의 것으로, 청년기의 방황과 그 연장선의 유학을 포함한다. 이는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찾아 헤매 준비기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세계를 보는 시각을 획득하고 젊은 지사로서 조선의 개혁방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1913년 11월, 이광수는 북방으로 방랑길에 올랐다. 1914년 8월 하순까지 약 10여 개월 동안 그는 상해, 해삼위, 치타를 유랑하였다. 이 방랑은 행선지도 정하지 않은 채 시작되었다. 4년 정도 근무하던 오산학교를 뒤로하고 단돈 이원을 가지고 세계무전여행을 기획(?)하고 그는 한만(韓滿) 국경을 넘었다. 여행은 떠나는 자의 목적과 마음가짐에 따라 ‘보이는 것’과 본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당시 그가 북쪽으로의 방랑에 나선 이유는 여러 글들에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 먼저, 1925년(34세)에 쓴 『잊음의 나라로』에서는 자신의 진심을 고향하는 오산학교 교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다. “아아 조선야!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아 모든 물건아 하나도 남지 않고 죄다 내 기억에서 스러지어 버려라!”면서, “나를 모르는 나라로 달아나려” 하였다.⁶⁾ 1936년(45세)에 쓴 『그의 자서전』에는 방랑의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산재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3가지 이유가 추론된다. 첫째, 그는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에 사랑도 없이 결혼한 아내로부터 떠나서 “혼자됨으로써 만족”할 것 같았다. 둘째, 당시 젊은 조선의 지식인들은 방랑이나 망명을 일종의 ‘시대정신’이나 ‘로맨틱’한 유행으로 간주하였고, 그들의 주된 행선지는 망명객들이 많이 모이기로 유명한 북만주나 시베리아였다.⁷⁾

554-557.

6) 이광수(1925.1), 『잊음의 나라로』, 『영대』, 5호, 『이광수전집8』, 우신사, p. 245.

셋째, 오산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일부 교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심적 고통이 커서,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나의 고백』(1948년, 57세)에는 당시의 방랑은 중국, 안남, 인도 페르샤, 애급 등, 쇠망한 나라를 둘러보고, 그들이 독립을 준비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함에서였다고 적혀 있다. 십년을 예상하고 나선 그 길에 대해 그는 망국의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자 아세아를 걸어서 횡단하려 했노라 진술하고 있다.⁸⁾

이상을 종합해 보면, 북방으로 방랑길에 오를 당시 그는 오산학교 교원과의 갈등으로 조선으로부터 ‘달아나려는’ 마음이 매우 컸다. 『그의 자서전』에는 아꼈던 제자들을 두고 떠나던 당시의 심경을 ‘자식 떼어 두고 쫓겨나는 어미의 마음’이어서, 떼어놓는 ‘발자국마다에 피가 고인다’고 적고 있다. 당시 그는 “사람에게 정이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길 정도로, 동료들의 몰이해와 오해로부터 크게 상처를 받아서, 돈도 거의 없이 학교가 끝나자 산보가는 체하고 ‘달아 나와서는’ 고개턱을 넘었으며, 멀리 학교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고는 울었다고 적고 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날마다 새 땅, 낯선 새 사람을 찾아서 지옥으로 가는 여행길 대신 중국 땅을 밟았던 것”이다.⁹⁾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나의 고백』의 진술처럼,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에게 망국의 지식인으로서 조선독립의 방안을 모색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3. 중국에서 체험한 문명화의 단계에 따른 국가의 위상과 중국인들의 분투

이광수는 1913년 12월 한 달 동안 상해에 머물렀고, 1914년 정월, 러

7) 이광수(1936), 『그의 자서전』, 『이광수전집6』, pp. 348-353.

8) 이광수(1948), 『나의 고백』, 춘추사, 『이광수 전집7』, 우신사, p. 238.

9) 이광수(1936), p. 348.

시아 해삼위로 떠났다. 『상해서』는 상해의 첫 인상을 기록한 기행문이고, 『해삼위로서』는 해삼위로 가기 위해 상해를 떠나던 날 황포부두의 인상을 기록한 글이어서, 둘 모두 중국기행문들이다. 이들을 보면, 이광수가 상해에서 깨달은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현 세계는 문명화의 단계에 따라 동·서양 간, 그리고 동양의 국가들 간에도 위계화된 서열이 존재하며, 국제사회에서 특정 국민에 대한 예우는 그것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그가 상해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상해부두에 정박해 있던 美(미국), 英(영국), 法(프랑스)철갑선에 대한 묘사에 잘 나타나 있다.¹⁰⁾ 1913-15년경 상해는 영국, 미국, 프랑스의 조계 하에 있었다. 상해부두에 주둔해 있던 3국의 철갑선은 이를 말해준다. 프랑스풍의 거리를 지날 때 그는 “법조계(프랑스 조계)는 一街路를 隔함에 불과하건마는 尊重하고 쓸쓸하기가 ㅉ 世界”라면서, 이는 “그 本國이 老衰하는 表象”이라 말한다.¹¹⁾ 즉, 상해를 프랑스, 미국, 영국이 분할 통치하고 있지만, 현재 그들 사이에도 엄연한 위계가 있다는 것이다. 『상해서』의 제이신에서 그는 상해에서 통용되는 각국 언어 중 영어의 지위가 탁월함은 조계 3국 중 영국의 지위가 우월함을 뜻한다고 지적한다.¹²⁾

상해의 황포탄두(黃浦灘頭) 거리에 준비한 회풍은행(滙豐銀行), 白耳義은행 등 선진 열강의 은행들에서 이광수는 상해가 중국금융의 중심이며 국제적인 무역도시임을 읽는다. 동시에 그는 상해의 발전이 중국의 것이 아님도 읽어낸다. 그는 서구 열강들이 중국의 광산과 철도의 끝을 물고 “사억만(四億萬) 못생긴 중국인의 고혈(膏血)을 쪽쪽 빨아먹”고 있다면, 각국 은행의 “키다란 유리창 안 킴킴 金庫 속에 중국의 減稅, 海關, 稅郵稅等 중국의 文券이 典當을 잡히어서 기한이 다하기를 기다리는 양을 상상하며 破産 滅亡에 瀕하는 老大國의 情景에 ㅉ 눈물이 지더이

10) 이광수(1914.12), 『上海서』, 『청춘』 제3호, pp. 102-103.

11) 이광수(1914.12), p. 106.

12) 이광수(1915.1), 『上海서』, 『청춘』 제4호, pp. 76-77.

다.”고 적고 있다. 그는 중국을 ‘늪은 대국’이라 표현하고, 조선인들이 숭상해 마지않던 대국 중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서방열강에 침탈당한 모습에 소름 돋아 한다.¹³⁾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가 중국의 가장 비옥한 양자강 유역의 부(富)를 모두 차지하고 있고, 상해는 골목마다 매독과 임질 치료약 광고나 붙어 있는, 서방열강의 ‘신식민지’로서 美色의 중심지였다. 이를 목도한 이광수는 ‘향내 나는 곳에 독 있음’이라면서 ‘문명은 곧 매독’(civilize=syphlize)이라는 속설을 떠올린다.¹⁴⁾

이광수는 또한 상해가 ‘중국의 기형적 축도’라 말한다. 상해에는 편발에 남자의 노예노릇을 하는 여성과 단발남복하고 여성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이 공존하며, 사회주의와 허무주의가 공존하고, 파리에서 유학한 최신희의 학자와 요순의 도와 공맹의 예를 설하는 구투의 유학자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의 자서전』(1936년-45세)에서도 그는 상해를 ‘국제적인 괴물도시’로 묘사하고 있다. 양자강의 “물은 참 더러웠다. 흐리다 못해서 꺼똥다. 세계에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 양자강 입은 바다와 같았으나 무척 더러웠다.”면서, 거기서 만난 중국인들 역시 ‘참말 떠드는 백성’이었다고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¹⁵⁾

하지만 이광수는 상해에서 중국(인)의 가능성을 읽어내기도 한다. 첫째, ‘상무인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출판과 인쇄 작업에서 그는 중국인들의 신지식에의 욕구와 국민교육에 대한 열성, 그것을 통한 근대화에의 노력을 본다.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의 완비된 설비와 그곳에서 발간되는 다채로운 책들에서 그는 “중국이 서양과 겨루어 문명인의 주인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읽어낸다. 그는 서양인의 손을 빌어 만든 한권의 한영사전뿐인 조선을 떠올리며, 중국을 부러워한다. 둘째, 그는 중국인들이 근검저축성이 강하고, 상업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세계 도처에

13) 이광수(1914.12), p. 105.

14) 이광수(1915.1), p. 78.

15) 이광수(1936), pp. 352-354.

상포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중국인들의 기질에서 중국의 미래가 밝음을 본다. 그는 인력차를 타고 상해의 제일 변화가인 영대마로를 달리면서 좌우에 사오층, 칠팔층의 벽돌 양옥들이 즐비함과 그 길을 설 새 없이 달리는 전차와 자동차,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해사람들을 보았다. 상해는 비록 서방열강의 조계 하에서나마 문명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중국인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었다. 셋째, 그는 중국인들은 전등을 결망정 촛불을 버리지 아니하고, 단발에 양장을 하더라도 고래의 예의를 지키는 등, 서양의 것을 가져다 사용하면서도 ‘제 本色을 잃지 아니하자는 美質’을 지니고 있는 문화대국이라 말한다. 중국인들이 자국문화와 전통에 대한 긍지와 사랑을 잃지 않고 있음에서 그는 중국의 미래를 낙관한다.¹⁶⁾ 넷째, 중국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광활한 국토, 즉, 대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가능성을 읽어낸다. 그는 상해의 황포탄공원을 방문하여, 육대주 자연의 정수들을 다 모아 ‘대조와 조화의 묘’가 극에 달한 공원을 다듬어 만든 중국인들의 문화의식을 칭찬한다. 거대한 나라 중국은 자연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오랜 문화대국의 자취도 간직하고 있었다.

「상해서」가 상해 도착시의 인상기라면, 「해삼위로서」¹⁷⁾는 상해를 떠나던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이광수는 상해에 머물 때 한인대표 신규식이 미국 상항(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하는 『신한민보』(新韓民報)의 주필을 구하니 그리로 가라면서 여비 오백원과 해삼위에 있는 월송 이중호와 길림성 물린에 있는 추정 이갑에게 소개장을 써 주자, 성약한(聖約翰)대학의 입학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는 길의 경유지로서 해삼위에 들르게 된다.¹⁸⁾ ‘해삼위’는 러시아 시베리아 동남부에 위치한 동해 연안의 항구

16) 이광수(1915.1), p. 79.

17) 「海參威로서」(『청춘』 6호, 1915.3)에서 이광수는 블라디보스톡을 ‘해삼위’(海參威)가 아닌 ‘海參威’로 표기하고 있다.

18) 이광수(1948), p. 242; 박계주·곽학송 공저(1962), pp. 555-556.

도시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를 말한다. 해삼위(海蔘威)를 경유하게 된 데 대하여 이광수는 당시 “내(여행의) 목적은 방랑에 있으니 곧장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베리아 구라파를 경유하는 것이 더구나 좋은 일이었”고, 서간도에 위치한 ‘해삼위’는 특히 당시 조선의 젊은 망명객들의 집결지여서 “기어이 한번 가 보고 싶은 곳”이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조선망명객들이 여러 단체들 일도 하면서 싸움도 가장 치열하게 하여 “칼질과 육혈포질이 난무”한 곳이어서 그는 그곳에 흥미를 느꼈다.¹⁹⁾

『해삼위(海蔘威)로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광수가 부두로 오는 길에 만난 백인에 대해 극심한 열등의식을 표현한 부분이다. 이광수는 새로 마련한 양복과 구두를 신고 한껏 부푼 상태에서 난생처음 인력차를 타고 상해의 중심가인 영대마로(英大碼頭)를 달려 부두로 향하던 중, 진짜 양인(洋人)을 처음으로 만난다. 그는 양복이 어색한 자신과 그것을 자연스레 입은 양인의 모습에서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을 느낀다. 열등감은 양복이 그들의 옷이어서만은 아니었다. 양인들은 공사 간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중국에 나와 있었으나, 자신을 포함한 조선인 일행은 특별한 목적도 없이 중국과 러시아, 만주를 배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은 양복을 입고 양인의 흉내내기에 급급한 조선인이고, 양인들은 정보자이고 다스리는 자로서 이마의 주름하나 머리터럭 한올까지 ‘투쟁의 흔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듯 ‘엄엄하’게 느껴졌다고 서술한다.

路上에서 眞字 洋人을 만나매 나는 지금껏 가지었던 프라이드가 어느덧 스러지고 등골에 찬땀이 흘러 부지불각에 폭 고개를 숙이엿나이다. 洋人の 옷이라고 반드시 내것보다 나은 것은 아니며, 내 옷 입은 꼴이 반드시 洋人보다 자리가 잡히지 아니함은 아니로되, 자연히 洋人은 富貴의 氣象이 있고, 나는 빠들빠들 洋人の 흉내를 내러는 불쌍한 貧寒者의 氣象이 있는 듯하여, 羞恥의 情이 저절로 생김

19) 이광수(1936), p. 356.

이로소이다. 과연 나는 아무 目的도 없고 事業도 없는 遊客이요, 그네는 私事公事に 눈뜰 사이가 없이 奔走한 사람이니 이만하여도 내가 羞恥의 情이 생김은 마땅할까 하노이다. …… 그네는 과연 征服者요, 治者인 지위에 서서 宇內 도처에 橫行闊步하는 분네들이니 그네의 이마의 주름과 머리의 센 터럭도 다 무슨 鬪爭에의 痕迹과 重大한 意味가 있는 듯하여 自然이 엄엄하게 보이더이다. 이렇게 그네를 보고 한편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얼굴에 핏기없는 우리 일행의 身勢를 보오매, 未嘗不 淒涼한 心思를 비길 곳이 없어 저절로 고개를 돌리었나이다. …… 나는 입을 줄은 모르면서도 하도 제 身勢가 초라하여, 혹 英文新聞이나 보면 人物이 좀 돋우 설까 하는 가련한 생각으로 十全 銀貨를 주고 中國 外字報치고 가장 勢力 있다는 上海 今朝發行 一部를 사 광고그림만 뒤적뒤적하다가 外套 호주머니에 싹뚝 밖으로 나오게 집어넣어 몸치레를 삼았나이다.²⁰⁾(강조는 필자)

인용문에서 그는 양인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읽지도 못하는 영자신문을 사서 ‘몸치레’를 하고 있다. 초라한 이광수는 “인물이 좀 돋우설까 하는 가련한 생각”에서 타인들이 볼 수 있도록 서양신문을 반쯤 나오도록 호주머니에 넣어 몸치레를 삼았는데, 이 대목은 식민지 청년의 황량한 내면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인에 대한 동양인으로서의 열등감은 부두에서 출발을 준비하는 ‘코리아호’를 보면서 더욱 심화된다. 계기는 여객선의 선실구분이었다. 동양을 향해하는 배들은 1,2등 객선이 있는데, 2등 객선은 양인이 타는 갑판 위의 선실과 중국인이 타는 갑판 아래 킁킁한 방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배를 타는 동양인 선객은 거의 없었는데, 우연히도 그는 양인이 타는 갑판 위 선실에 오르고 있는 중국인 일가족을 목격한다. 그들은 광동인이었다. 광동인은 양인과 교통한지 300여 년이 되어 현재 개명한 사람이 많고 상인이 많은데, 그들은 성질이 냉철하고 예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동인들은 일찍이 포구, 남양, 호주에

20) 이광수(1915.3), 『海參威로서』, 『청춘』, 6호, pp. 79-81.

진출하여 양인과 각축하여 우세한 상권을 장악하였는데, 그 때문에 중국 내에서 그들은 일본인에 준하는 대접을 받고 있었다. 이광수는 동서양 간, 또 국가 간에도 문명의 단계에 따른 서열화된 위계가 존재하며, 한 국가 내에도, 중국 광동인의 예처럼, 그것이 존재함을 본 것이다. 특히 그는 중국에서 일본인의 특별한 지위를 보았고, 광동인의 중국 내 지위를 보았다.

이광수는 1918년 10월 중순 2차 동경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하였다가 허영숙과의 결혼문제로 번민하다가 1918년 10월 하순 허영숙과 북경으로 도피하였는데, 『그의 자서전』에는 당시 그가 느꼈던 북경에 대한 첫 인상이 기록되어 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도 사모하던 북경이다. 천자가 있는 데로, 문화의 가장 높은 중심으로 한번 보기를 끔찍이 원하던 북경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 가장 천한 나라의 하나로 준야만(準野蠻)의 대우를 받는 중국의 서울에 불과한 북경이다. 중국을 조국으로 알던 우리 조선인들이 언제나 원망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렇게 더러운 나라, 이렇게 더럽고 못난 백성에게 소인국을 바치던 역사의 여러 가지 기억이 머릿속에 일어나서 심히 불쾌하였다.”²¹⁾ 이광수는 북경의 성중에서 나는 소음을 묘사하면서 “음모의 도시, 향락의 도시, 죄악의 도시의 소리다. 바람결에 불어오는 것은 큰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와, 그렇지 아니하면 군벌들이 향락하는 아편과 계집의 냄새”라 말한다. 중국의 문명단계를 칭한 ‘준야만국’이란 개념은 2차 동경유학 시절 그가 묘를 참배할 정도로 존경했던 후쿠자와 유키치²²⁾의 문명론의 세 단계, 즉, 문명, 반개, 야만에서 ‘반개’에 해당한다.²³⁾ 긍정과 부정울 오가는 중국(인)에 대한 이광수의 인식은 결국 중국의 문명단계를

21) 이광수(1936), p. 393.

22) 이광수(1916), 『東京雜信: 十一. 福澤諭吉의 墓를 拜함』, 『매일신보』, 1916.9.27-11.9, 『이광수전집10』, 우신사, pp. 316-319.

23) 후쿠자와 유키치, 정명환 역(2012),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 기파랑, p. 26.

‘준야만’의 단계로 규정하게 하고 있다.

이광수는 중국체험에서 서양은 동양에 비해 문명적으로 높은 단계이며, 동양 내에서도 문명의 단계에 따른 국가 간 서열화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북경에서의 서양식 레스토랑 체험기에 잘 나타나 있다. “서양 사람은 다 자신도 있고 위신도 있어서 어울려 보이”는 반면, 중국인들은 “아편장이같이 어깨가 쑥 올라가고 목이 앞이 죽고, 입이 다 물리지를 아니하여 얼이 빠져 보였다”면서 그는 “서양 사람들은 비록 종용종용하더라도 서로 마음 툇 놓고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건마는, 동양 사람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도무지 마음을 펴지 못하”고 있어서 심히 불쾌하였다고 서술한다.²⁴⁾ 이어 그는 서구 열강을 ‘문명’국으로, 중국을 ‘준야만’국으로, 조선을 ‘세계에서 제일 못난 국가’, ‘제일 지체 낮은 국가’라 표현한다. 박계주가 이광수 평전에서, 그가 당시 국제적인 무역항 상해에서 본 것은 ‘동양의 비극’이었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일 것이다.²⁵⁾ ‘세계에서 제일 못난 국가’ 조선은, 후쿠자와式으로 표현하면 ‘야만’국에 해당한다.

이상의 사실들에서 이광수가 중국여행을 통해 체험한 것 두 가지는, 문명의 단계에 따라 국가를 위계화하고 그에 준해 국민을 대우하는 세계라는 사실과 미·영·프 조계 하에서지만 나름대로 중국을 문명화하려고 애쓰면서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중국인들의 분투와 교육에의 열의, 상업에 힘쓴 광동인들의 성취나 위상이었다.

4. 러시아에서 깨달은 조선인의 문제점과 ‘조선인 이광수’

이광수는 1914년 1월 해삼위를 시작으로, 치타, 바이칼호반, 북만주 등

24) 이광수(1936), p. 394.

25) 박계주·곽학송 공저(1962), p. 555.

에서 그해 8월까지 러시아에 체류하였다. 상해에서 “아국의용함대”(俄國義勇艦隊) ‘플라와호’, 즉, 러시아 전투용 군함을 타고 장기(長岐)를 거쳐 해삼위에 도착하여, 1914년 8월 로령을 떠날 때까지, 그가 러시아에서 획득한 인식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조선(인)에 대한 것으로, 러시아에 사는 조선이주민들은 가난하고 무지하며, 망명한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은 시간과 청춘을 낭비하며 파당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현재 러시아는 독일과 전쟁을 치르고는 있으나 러시아는 오랜 문명국으로 러시아는 정교를 신봉하며, 시베리아나 만주벌판 등 드넓고 아름다운 국토와 자연을 지닌 나라이다. 러시아인들은 전쟁 중에도 자문화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타민족을 하대하지 않고 배려하는 등, 온화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이광수는 조선을 벗어나기 위해 방랑길에 올랐으나, 그가 조선인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사실임을 통각하였다.

일면 당연해 보이는 세 번째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1913년 이광수는 조선과 조선인들로부터 벗어나고자 무작정 방랑에 나섰다. 하지만 타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이광수’라는 개별자이기 이전에 ‘조선인’임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들을 피하고자 조선을 떠나 왔어도, 그가 타국에서 만나 대화하고 도움을 받으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조선인인 것이다. 무일푼으로 나선 장정에서 그는 안동현에서 우연히 정인보를 만나 그의 권유와 도움으로 상해로 가게 되었고,²⁶⁾ 상해에서는 신규식의 도움으로 미국 상향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하는 『신한민보』의 주필이 되기 위해 해삼위로 가게 되었다.²⁷⁾ 즉, 그는 타지에서 끊임없이 조선인들의 도움으로 여행을 이어가고 행선지를 잡아 갔다. 외국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존재들일 뿐, 그가 말을 섞고 갈등하며 살아갈 존재들은, 외국에서도 싫든 좋든 조선

26) 이광수(1930.11), 『上海 이일지일』, 『삼천리』, 제10호, 『이광수전집8』, 우신사, p. 248.

27) 이광수(1948), p. 242; 박계주·곽학송 공저(1962), pp. 555-556.

인이었다. 이 평범한 진리의 확인이야말로, 이광수가 해외방랑에서 체득한 가장 값진 인식으로 보인다. 심지어 그는 조선에서보다 이국 타지에서 더욱더 ‘조선인’이었다. 국적 혹은 민족성은 국토를 벗어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욱 또렷하게 체감되고 각인된다. 중국인이거나 러시아인들의 시선에 그는 ‘이광수’이기 이전에 ‘조선인’이었다. 그가 조선인임은 어디에 머무는가와 무관한, 생래적이며 숙명적인 사실이었다. 더욱이 당시는 내셔널리즘이 가장 폭력적으로 실현되던 시대였다. 이광수는 자신이 조선을 떠나서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음을 통감하였는데, 이는 그가 병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할 일조차 딱히 없어 가장 막막한 시간들을 로령의 땅에서였다. 북방체험기가 주를 이루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그 시절의 깨달음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나고 자라고 또 묻힐 땅에서부터 내 생활을 뿔 수 없다는 것, 나는 마치 그 땅에 난 풀이나 나무와 같이 그 땅을 떠나서 생명이 없다는 것을 로령에서 깨달았다.”²⁸⁾

하지만 러시아체험은 그에게 조선을 떠날 당시 가졌던 조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들을 불식시켜 주지 못했다. 『나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해삼위에 열흘 가량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본 조선의 지도자급 인사들은 진저리나도록 당파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해삼위)에서 정순만은 양성춘을 쏘아 죽이고, 양성춘의 아내와 형이 정순만을 도끼와 칼로 찢어 남편과 아우의 원수를 갚은 것이 바로 수년 전이었다. 이것이다 당파싸움에서 나온 비극이었다.” 『그의 자서전』에서도 해삼위는 조선 망명객들의 당파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손바닥만한 조선에서 기호는 무엇이고 서북은 무엇이고? 나는 이 사람들을 다 저주하고 싶었다. 내가 조선사람이 된 것까지 저주하고 싶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²⁹⁾ 심지어 그는 해삼위에 거주하는 일반 조선인들이 애국지사라면

28) 이광수(1936), p. 406.

29) 이광수(1936), pp. 356-357.

아주 싫증을 내고 있었다고 전한다. 그의 눈에 해삼위의 애국지사들은 “나라를 잃은 허전한 마음이 부접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 허무함에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간혹 영어나 한어를 배워 중국이나 서양에 유학을 가려는 치들이 있긴 했으나, 그들은 “정정보가 돈을 한짐 지고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중국인에게 담배나 얻어 피우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오산학교에서와 달리, 해삼위에 사는 조선인들은 태극기를 내걸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 자유는 누렸다. 하지만 그들은 딱히 할 일도 없이, 러시아정교, 기독교, 불교 등을 기웃거리며 청춘을 허비하고 있었다.³⁰⁾ 이광수는 “그대들이 비분강개한 마음을 품고 시베리아로 방황하는 것이 시적(詩的)일는지 모르거니와, 아무 실제적 이익은 없는 것이니, 이것은 민족적으로 보아서 큰 손실이다.”면서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먼저 저를 고쳐서 새 사람이 됨”에 힘쓰고, “동포들이 그 땅에서 뿌리를 박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창하기를 도모”하는 것이 “영구한 실력이 생기는 일”이라 훈계한다.³¹⁾

상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상해에서 문일평, 홍명희, 조소암, 김규식, 신규식을 만나기도 했지만,³²⁾ 거리의 책사들을 돌면서 방랑객들과 어울려 책이야기, 조선 역사이야기로 소일하였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소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³³⁾ 그는 그런 조선인들에 대해 “밥을 주면 먹고 옷을 주면 입고 또 술이 생기면 먹고 없으면 굶고, 다만 조선의 역사를 쓰고 불충불의한 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생활을 삼고 있었다. …… 아무려나 P나 T는 다 스러지는 조선의 그림자였다. 다시 나기 어려운 표본들이었다.”고 적고 있다.³⁴⁾

30) 이광수(1948), pp. 239-244.

31) 이광수(1936), p. 382.

32) 노영환 편(1979), 『춘원연보』, 박종화 외 3인, 『이광수전집 별권-화보·평전·연보』, 우신사, p. 158.

33) 이광수(1936), p. 354.

조선인의 러시아 이주의 역사는 1863년에 시작되어, 1911년에는 해삼 위 개척리에 ‘신한촌’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카레이스키들은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황무지에 내팽개쳐진 채 고통과 애환의 삶을 살았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해삼위시(市)가 조선이주민들을 ‘귀찮은 거린채들’이라면서 공동묘지 저쪽으로 몰아 격리시키고 있었다고 전한다. 카레이스키들은 썰매를 타고 온 이광수에게도 “적개심 있는 눈으로 훑어 보”고 반말지기를 하였으며, 몸과 짐을 ‘수험’하였다. 밀정협의를 씩워 바다 얼음구멍에 장사한 조선인도 여럿 있다 했다. 치타의 이주조선인들은 감자나 오이 농사를 하거나 빨랫감을 하고 있었다. 인텔리들은 켈런 마는 일을 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한결같이 가난했다. 구라파대전으로 총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무지하고 순박한 조선인들은 러시아어도 모른 채 징발되어 전선에 보내졌다. 조선인 병사들은 전쟁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자식을 전선에 보낸 조선인 노인들은 글을 몰라서 호외 신문을 읽지 못했는데, 이광수는 그들에게 호외를 읽어주곤 하였다.³⁵⁾

중국과 러시아 여행에서 이광수가 특이하게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조선인들이 서로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다. 1913년 말 상해에서, 1914년 해삼위에서, 1918년 북경에서 그가 만난 조선인들은 한결같이 서로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힐끗힐끗 정탐하는 눈길을 보낼 뿐”, 이국에서 마주쳐도 조선인들은 쉽게 서로를 아는 체하지 않고 피했다. 이런 기운은 시베리아를 향해 가는 선상에서 만난 조선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인들은 서로를 무서워하여 서로 믿는 터가 아니면 좁체로 주소를 알리지 않고 숨긴다.”면서 그는 타국에서 조선인들끼리의 반목과 불신이 하도 깊어, “근 삼십년이나 지난 오늘까지 아직도 이 구석저 구석에서 그런 어리석은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조선 사람은 아마도 매를 더 맞아야 되겠다는 울분까지도 일어난다.”고 적고 있다.³⁶⁾

34) 이광수(1936), p. 355.

35) 이광수(1948), p. 250.

한편, 러시아인에 대해서 그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의 따뜻한 민족성과 러시아정교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소개하고, 러시아 청년들은 독일과의 전쟁의 의미나 정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향에서 가족들과 일상을 영위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으나, 국가의 부름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참전하고 있다고 전한다. 전쟁 중임에도 러시아인들은 5월 1일 봄날에 숲을 즐기는 ‘베료즈’라는 전통문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보면서 그는 조선의 ‘답청’을 떠올리기도 한다. 친진(북경)서 만난 ‘쥬콥스카야’ 부인 일행을 두고는 “그들은 조금도 이민족에 대한 차별을 보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동포애로 우리를 대하였다. 나는 이때에 더욱 아라사 민족의 위대한 국민성을 깨달았다.”고 쓰고 있다.³⁷⁾ 공사관에서 만난 “젊은 아라사 사람은 친절과 관대와 이러한 아라사 사람의 성격을 가장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듯하였다.”면서, 러시아인들은 나뭇의 문화와 종교를 지닌 문화민족이라고 서술한다.³⁸⁾

하지만, 이광수가 러시아를 떠난 후에도 계속 그곳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만주별판과 시베리아의 대자연, 로령 바이칼호 근처의 설원 등, 러시아의 풍부한 자연 때문이었다. 이광수가 1933년에 발표한 소설 『유정』(『조선일보』, 1933.10.1-12.31)은 러시아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광수는 ‘최석’과 ‘남정임’이란 등장인물 간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통해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정염’의 순결성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그는 순백의 설원인 시베리아와 하르빈, 치르하르, 치타의 황혼과 끝없는 지평선, 바이칼호의 호반, 이르크트스크, 시베리아의 사슴 떼, 북만주의 광야를 아름답게 묘사하여 대국 러시아의 풍부한 자연을 칭송하고 있다.³⁹⁾

36) 이광수(1936), pp. 351-357.

37) 이광수(1936), p. 393.

38) 이광수(1936), p. 396.

39) 이광수(1933), 『유정』, 이광수(1986), 『춘원문학7』, 성원출판주식회사, pp. 76-78. p. 98, p. 101 등.

한편, 『유정』에는 아라사에 사는 조선인들이 일제의 식민지인 고국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애정과 염원을 버리지 못하는 등, 양가적 감정상태에 있음이 잘 그려져 있다. 바이칼호 호반 근처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이 낳고 10년째 살고 있는 R은 “고국에 무슨 그리울 것이 있단 말인가. 그 빈대 꿩은 오막살이가 그림단 말인가. 나무 한 개 없는 산이 그림단 말인가. 그 무기력하고 가난한, 시기 많고 싸우고 하는 그 백성을 그리워한단 말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그리워할 음악이 있단 말인가. 미술이 있단 말인가, 문학이 있단 말인가, 사상이 있단 말인가. 사모할 만한 인물이 있단 말인가. 날더러 고국의 무엇을 그리워하란 말인가.”라고 토로하면서, “만일 조선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약이 있다고 하면 나는 생명과 바꾸어서라도 사먹고 싶”다고 말한다.⁴⁰⁾ 이 대목에는 당시 이광수의 마음도 엿보인다. 조선은 산은 많고 들은 좁아서 조선인들의 마음이 작고, 그래서 조선인들은 큰일 하기가 어렵다. 간혹 큰 사람이 나도 다른 이들의 시기 때문에 큰일을 도모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정감록에도 나온다고 그는 말한다. 시베리아 거주 조선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렇듯 강렬하게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최석’은 R의 집 벽에 조선지도와 단군의 초상이 걸려 있고 R부부가 그것에 배례를 하자,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따라서 절을 한다.⁴¹⁾ 이는 조선이주민들이 국권을 상실한 고국을 미워하면서도 고국에 대한 애정과 염원을 감출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광수가 방랑에 나선 것은 그런 조선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고, 짧은 순간이었으나 그가 조선(인)을 혐오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유정』의 등장인물들이 조선의 지도와 단군의 초상 앞에 절하는 모습이나, 이광수가 인간은 땅에서 난 풀과 같아서 자신이 태어난 땅을 결코 떠날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른 것은 조선인으로서 그가 고국의 미래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음을 자각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0) 이광수(1933), pp. 74-75.

41) 이광수(1933), pp. 84-85.

이광수의 조선(인)에 대한 애증은 로령에서 쓴 동포에게 주는 글에도 비판과 독려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최근에 발굴·소개된 『권업신문』에 실린 「독립준비하시오」라는 순한글의 논설문에서 그는 조선의 청년들이 정치나 법률, 교육 분야를 선망하여 마치 건국영웅인 듯 날뛰는 관례를 비판한다. 돈의 위력이 남다른 시대에 청년들은 벼슬욕을 버리고 건강한 직업정신으로 무장하여 상업에 매진하여 독립할 준비를 하라고 독려한다. 국권의 상실이나 회복은 일시에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것의 지속은 오랜 준비과정, 즉, 자금력과 인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⁴²⁾ 독립 자체보다 독립된 이후 국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금의 확보와 인재의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무력경쟁이 아닌, 통상을 통한 상업경쟁의 시대이며, 상업적 능력인 경제력에서 문명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로령의 조선인들은 상업 진흥에 힘쓰라고 권면한다. 특히 조선이주민들끼리의 협동을 강조한다. 『대한인정교보』에 수록한 「농촌계발의견」에서 그는 외국에 이주해온 조선인들에게 민족정신을 불어넣어 외국에 동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타국에서 조선인들은 문명한 나라의 사람답게 말이나 행실을 하여야 하며, 인재와 재정을 모아 후일을 위한 오늘의 준비에 힘쓰라 말한다. 즉, 러시아 거주 동포에게 주는 글들에서 그는 조선독립에 관한 직접적인 발언보다 인재와 재정의 정비를 강조하면서 독립의 유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⁴³⁾ 이들 글에 나타난 준비론적 인식은 기행문들에 나타난 조선인에 대한 회의적인 판단과는 좀 다른데, 양자 모두가 그의 진심의 일면으로서, 당시 그가 조선(인)에 대해 애증이 교차하는 양가적 감정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해삼위와 치타에서 그는 교육자이자 계몽적 문사로서 조선민족을 향해 진심어린 권고의 말을 하였는데, 논지는 지금

42) 이광수(1914), 「독립준비하시오」, 『권업신문』, 100-103호, 1914.3.1-22; 최주한(2014), 『이광수의 문학과 윤리』, 소명출판, pp. 552-555.

43) 이광수(1914.6.1), 「우리주장-농촌계발의견」, 『대한인정교보』, 11; 최주한(2014), p. 558.

당장은 독립을 말할 수 없으나 언젠가 그날이 오면 두 번 다시 국권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업 진흥과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5. 동경체험에서 알게 된 일본근대문명의 힘과 진화론적 문명사관

이광수는 1914년 7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3국 동맹군과 영국, 소련, 프랑스 연합군이 맞붙은 구라파전쟁(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행을 단념한 채 1914년 8월, 귀국한다.⁴⁴⁾ 1년여를 국내에 머물던 그는, 인촌 김성수의 도움으로 1915년 9월 일본으로 2차 유학을 간다. 그는 1915년 9월 와세다대학 고등예과에 편입하였다가 조도전대학 철학과 특대생이 되어⁴⁵⁾ 1918년까지 동경에서 유학하였다. 이 기간에 그는 『매일신보』를 통해 조선사회에 문사로 알려지게 된다. 일본에서 귀국할 무렵 그는 『매일신보』의 대표적 집필진이 되어 있었다. 즉, 2차 동경유학 전후, 조선에서의 그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이 무렵에 그는 동경체험에 관한 글 「동경잡신」(『매일신보』, 1916.9.27-11.9)과 「동경화신」(1917.4.17-4.27), 「동경에서 경성까지」(『청춘』, 9호, 1917.7)를 쓴다. 이들에는 그가 상해, 해삼위, 치타를 체험한 이후에 다시 밝은 일본 동경에서의 체험 결과가 담겨 있다.

「동경잡신」과 「동경화신」은 『매일신보』 제1면에 실렸다.⁴⁶⁾ 특히 「동

44) 미국행 단념의 이유는 김원모(2015), 「한국 민족운동의 시단」, 『춘원연구학보』, 7호, p. 113 참조.

45) 노영환 편(1979), p. 161.

46) 일제강점기 기행문을 연구한 심원섭은 총독부 기관지에 해당했던 『매일신보』나 『경성일보』는 기행문들을 주로 1면에 수록했는데, 이는 기행문의 시대였던 1910년대에 일제가 식민지 개척을 위한 조선과 만주, 중국 등에 대한 지리 정보의 확보라는 필요성 때문에 기행문을 매우 중시하였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그는 일제가 식민

경잡신』은 제일면의 상단에 게재되었다. 이 글에서 그는 일본이 현재와 같이 강성한 제국에 이른 까닭을 밝히고, 일본의 교육, 상공, 생활, 문화 등을 조선의 현재와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조선의 개혁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엔 그의 계몽주의적 의식과 근대화된 일본에 대한 선망의 시선이 가감없이 노출되어 있다. 반면, 『동경화신』은 동경에 체류 중이던 그가 4월 벚꽃이 만발한 동경 시내 거리풍경을 전하고, 꽃구경을 즐기는 일본사람들의 일상을 소개하는 가벼운 통신문이며,⁴⁷⁾ 『동경에서 경성까지』는 조도전대학 시절, 방학을 맞아 일본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쓴 순수기행문이다. 이 글에는 6월에 연재를 마친 『무정』의 성취에 고무된 그의 의욕이 읽힌다.⁴⁸⁾

이 가운데 『동경잡신』이 단연 중요하다. 이 글은 1916년 『매일신보』에 28회에 걸쳐 15가지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내용은 1.학교(1회) 2.유학생의 사상계(1회) 3.공수(工手)학교(2회) 4.학생계의 체육(2회) 5.총망(惣忙)(1회) 6.목욕탕(2회) 7.경제의 의의(1회) 8.근이기의(勤而已矣)(2회), 9.명사의 검소(1회) 10.조선인은 세계에 제일 사치하다.(2회) 11.가정의 예산회의(2회) 12.복택유길(福澤諭吉)의 묘(墓)를 배(拜)함(3회) 13.문부성 미술전람회기(展覽會記)(3회) 14.지식욕과 독서열(2회) 15.일반인사의 필독할 서적수종(3회)이다. 40여 일간 연재된 이 글의 1, 2, 3, 4항은 일본교육에 관한 것이며, 5, 6, 7, 9, 10, 11항은 일본인이나 일본가정의 근면성, 위생관념, 절약정신, 경제관념, 계획적 지출, 지식에의 탐구열 등, 생활태도나 문화를 다룬 것들이고, 12, 13, 14, 15항은 일본근대화와 문화예술

지 ‘영토화’를 위해 기행문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심원섭(2014), 『일본제 조선기행문』과 이광수의 「오도답파여행」, 『현대문학의 연구』, 52권, p. 137-141.

47) 孤丹, 『동경화신』, 『매일신보』, 1917.4.27.

48) 이광수는 일본에 대비한 조선의 풍경을 “계모의 손에 자라나는 계집애 모양으로 차마 볼 수가 없게 가엾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광수(1917.7), 『동경에서 경성까지』, 『청춘』, 9호, pp. 78-80.

계나 출판산업 등 문화적, 혹은 지적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각 세목들에서 일본의 근황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조선의 현실과 대비되어 설명되고 있다.

이광수는 먼저, 일본의 잘 갖추어진 교육시스템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일본인들이 서구를 알고 배우려는 지적 열망이 높음을 전한다. 그는 한 국가의 교육능력은 “自然을 征服하는 知識을 與하고, 壽福貴福祿蒼生하여 億萬斯년에 千代萬代에 恒河沙量世界와 如히 無窮無盡하게 子孫繁榮하는 能力을 與하”⁴⁹⁾하면서, ‘일본국 융성의 근본’이 교육에 있다고 말한다. 이광수는 조선인의 교육에는 고등보통학교의 비중이 크다면, 고등보통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고등사범학교의 설립을 강조하고,⁴⁹⁾ 토목(土木), 치금(冶金), 채광(採鑛), 전기(電氣) 등 수공(手工)학교의 설립도 강조한다. 공업의 부흥으로 조선을 발전시키려면 숙련된 기수와 직공이 필요하므로, 경성, 평양, 대구, 개성 등지에 수공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의 대학교육은 독자적일 필요가 없다면, 일본의 우수한 대학, 문학과 정치는 조도전(早稻田)대학, 이재(理財)는 경응의숙(慶應義塾), 법률은 명치(明治)대학으로 조선인들은 유학을 가라고 권한다. 즉, 그는 조선의 교육은 조선인을 실무에 능한 직업인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⁵⁰⁾ 유사한 논리로, 그는 『동경잡신-2.유학생의 사상계』에서 현재 조선의 현실은 정치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조선인들이 정치를 공부할 때에는 ‘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조선인이 정치를 공부하여 현실에 적용하는 ‘응용술’로 펼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심지어 그는 내지인과 조선인의 외모를 비교한다. 내지인의 눈동자에는 예기가 충일하고 바짝 다문 입매에는 의지력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오랜 교육과 생존경쟁에 단련된 결과인 반면, 조선인은 눈동자가 풀어져 있고, 입은 헤 벌려져 있으며 얼굴빛은 병이 들어 황색인데, 이들의 모습

49) 春園 李光洙, 「동경잡신(1)학교」, 『매일신보』, 1916.9.27.

50) 春園生, 「東京雜信一忽忙」, 『매일신보』, 1916.10.10.

에는 쇠락의 기미, 궁한 기미, 천한 기미가 화인처럼 분명히 박혀 있다고 말한다.⁵¹⁾ 이러한 대목들에서 동양인에 대한 서양인들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과 흡사한 이광수의 관점이 읽힌다. 조선인을 타자화하는 이런 논리들에 탈식민 의식이 깃들 여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동경서 귀국할 무렵 쓴 「차중잡감」(『경성일보』, 1918.4.12.)이란 기행문에서 그는 일본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하대에 저항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홍수이후』(洪水以後) 제9호에 익명으로 기고하였다가 게재가 되지 못한 채 관현의 자료에 남아 있는 글 「조선인의 눈에 비친 일본인의 결함」에서도 일본인들이 조선인과 지나인에 대해서는 오만하게 굴면서 영국인에 대해서는 비굴한 태도를 보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⁵²⁾ 즉, 1910년대 후반 이광수는 조선민족에 대해 애증이 교차하는 양가적 인식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⁵³⁾

「동경잡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광수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묘를 참배한 사실을 서술한 회차다. 그는 후쿠자와를 일본에 태서의 신문화를 도입하여 구사상 구제도를 혁파하고 명치유신을 이끈 인물

51) 春園生, 「동경잡신－학생계의 체육(二)」, 『매일신보』, 1916.10.8.

52) 이광수는 1916년에 『매일신보』에는 조선어로, 『경성일보』에는 일본어로 「오도답파기행」을 실었는데, 조선어와 일본어 독자층에 따라 내용과 표현을 조절하고 있다. 이광수의 「오도답파기행」은 일제의 식민통치의 성과를 선전하는 관계기행문적 성격이 있지만, 총독부 주도하 조선의 근대화가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불균형적 발전을 초래하는 사실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도 담겨 있고, 조선 문화의 독자성과 조선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조한 대목도 있다. 즉, 이광수의 조선에 관한 양면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특히 이광수가 『경성일보』에 굳이 일본어로 「오도답파기행」을 실었던 것은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시마무라 호게츠가 조선에는 정신문명의 상징이 전무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광수가 저항하고자 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주한(2014), 「한국문학의 언어횡단적 실천과 동아시아: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와 「오도답파여행」」, 『민족문학사연구』, 55권, pp. 54-56.

53) 최주한(2014), 「『경성일보』라는 매체와 이광수의 일본어 글쓰기: 『경성일보』 소재 「차중잡감(車中雜感)」(1918) 연작 기행문에 대하여」, 한근대서지학회, 『근대서지』, 10호, pp. 178-181.

이라 소개한다. “천품(天稟)과 적력(積力)”을 갖춘 후쿠자와는 “일사일물(一事一物)을 정밀(精密)하게 연구(研究)”하는 인물로서 서양문명의 원류(源流)와 핵심을 예민하게 탐구하여 “신사상(新思想) 신경영(新經綸)으로 아직 춘몽(春夢)에 미각(未覺)한” 일본인들을 깨우쳐서 일본을 복(福)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⁵⁴⁾ 그는 후쿠자와가 게이오대학의 전신인 경응의숙을 창설한 사실도 전한다. 또한 조선인에게 7권의 필독서를 추천하는 글 ‘일반인의 필독할 서적 수종’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추천한 책은 『서양사』, 『세계지리』, 『진화론』, 『경제원론』(존 스튜어트 밀), 『개국오십년사』, 『중국철학사』, 『소봉문집』(蘇峯文集)인데, 4권은 서양서이고, 『중국철학사』를 제외한 두 권은 일본근대사에 관한 책들이다. 『개국오십년사』는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⁵⁵⁾가 편집한 일본 명치유신기의 문명사를 다룬 책이며, 『소봉문집』은 일본의 사상가이자 언론인이었던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峯)의 문집이다.⁵⁶⁾ 이광수는 이들 7권의 선정

54) 春園生, 『東京雜信: 福澤諭吉선생의 墓를 拜함(1)』, 『매일신보』, 1916.10.25.

55) 오쿠마 시게노부는 메이지(明治) 정부 때 국고를 정비하고 철도를 신설하고 음력을 태양력으로 교체하는 등, 근대일본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외무대신에 등용되었고,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하였으며, 이광수가 다닌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의 전신 동경전문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56) 도쿠토미 소호는 명치·소화기의 일본지식인으로서, 『國民新聞』을 주재하였고, 『近世日本國民史』를 출간하였고 조선 병탄화의 선봉에 섰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脫亞論)’보다 더 과격한 전쟁논리를 펼쳤으며, 그로 인해 조선에 무단통치의 길이 열리기도 하였다. 그는 조선의 신문과 잡지를 없애고 조선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로 통합한 ‘조선언론통폐합’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경성일보』의 ‘고문’으로 취임한 그는 당시 조선총독이던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1852-1919)에게 식민정책을 조언하는 정책보좌관 역할을 하였다. 또한 『대한매일신보』를 매수하여 『매일신보』로 개명한 뒤, 이를 『경성일보』의 일개 부서로 두고 ‘황국신민화’의 도구로 악용하였다. 그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조상이 같다는 동근설을 퍼뜨려 민족통화의 논리적 근거로 삼았고, “일한병합은 사람의 힘 탓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시대의 대세로, 고려 태조가 삼한을 통일한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일제의 동화정책을 정당화하였다. 그는 이광수에게 조선에서의 자기 아들이 돼 달라며, 감옥에 갈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이른 인물로도 전해진다. 정일성(2005), 『일본근국주의의

기준에 대해, 조선인들이 진화론적 발전사관에 입각하여 경제의 원리와 세계의 지리를 익히고, 현대문명은 서양의 문명이므로 서구의 역사와 철학의 흐름을 이해한 바탕 위에 현대문명을 이해해야 하며, 일본의 개국사와 문명사를 이해하는 것으로 교양과 지식의 근간을 삼아야 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특히 그는 오카 아사지로(丘淺次郎)의 『진화론강화』(進化論講話)를 추천하고 있는데, 진화론은 신문명의 총 원천으로, 과학과 현대 인류 만반 사상의 원리라면서 세계지리와 함께 이를 필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⁵⁷⁾ ‘일반인의 필독한 서적 수종’은 이광수가 꿈꾼 문명화의 뿌리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그의 제안 속에는 서구적 근대 문명을 보편사적 전개로 보는 사관과 조선을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한 지역으로서 간주하는 사고가 내재해 있다. 1910년대 후반은 조선이 일본과 합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며, 당시 그는 북방으로의 방랑에서 조선독립에의 가능성을 뚜렷이 찾지 못한 상태였다. 그가 『동경잡신』을 쓴 의도는 조선을 이끌어갈 유학생들에게 “他民族의 文明코 富케된 經路를 尋하여 比를 朝鮮에 應用”하자⁵⁸⁾는 것이었는데, 여기엔 보편성이 강한 문명론의 차원에서 보면 현금의 조선은,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선진문명을 이룩한 타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이광수가 2차 동경유학에서 무엇을 공부하였는지는 「그의 자서전」에 나타나 있다. 철학 전공자로서 그는 칸트의 인식론과 진화론, 마키아벨리즘과 트라추케의 정치론에 흥미를 가졌다. 특히 그는 당시 일본 학계를 풍미하던 진화론에 심취하였다. 그는 진화론을 “Struggle for life (살려는 싸움)”(生存競爭)과 “Survival of the best (잘난 자는 산다)”(適者生存), “Might is Right!(힘이 옳음이다.)”, “힘 센 자만이 살 권리가 있다. 힘 센

괴벨스: 도쿠토미 소호』, 지식산업사, pp. 6-8.

57) 春園生, 『東京雜信: 일반 인사의 필독할 서적 수종(3)』, 『每日申報』, 1916.11.9.

58) 春園生, 『東京雜信(一)유학생의 사상계』, 『매일신보』, 1916.9.28.

자의 하는 일은 다 옳다!”는 사상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조차 “내 마음의 명령을 뉘라서 막으랴, 어기랴! 오직 나만이 나보다 못한 약자들을 명령할 뿐”으로 이해한다. 그는 강자가 자신의 새 칼이 잘 드는지 시험하고자 약자의 목을 베는 ‘다메시기리’라는 무사들의 문화를 당연시하는 일본인들의 논리를 변용하여,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조선인의 운명은 조선인 자신의 총명한 판단과 정성 있는 노력 여하로 좌하게도 우하게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⁵⁹⁾ 이는 20대 중반의 그가 제국 일본의 수도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진화론의 한 축인 ‘약육강식’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원래 진화론은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는 생명체가 생존가능성이 크다는, 생존경쟁에서의 자연선택설을 골자로 한 생물학의 이론이다. 진화론의 제1원리 ‘적자생존’(適者生存, Survival of the fittest)은 찰스 다윈이 저서 《Struggle for Existence》에 등장하는데, 이를 1864년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Principles of Biology》에서 인간들의 사회적 생존경쟁의 원리를 함축한 사회학 용어로 사용하면서 의미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1910년대 후쿠자와 유키치 등 일본의 근대적 문명론자들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체를 표현하는 ‘적자’ 개념을 ‘강자’와 혼용함으로써 ‘적자생존’의 원칙이 ‘약육강식’의 원리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광수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광수가 말한 “Survival of the best (잘난 자는 산다)”에서 ‘the best’, 즉, ‘잘난 자’는 곧 ‘힘센 자’, ‘강자’이다. 따라서 이 세계에서는 힘이 곧 옳음을 결정한다. 그런데 ‘강자’가 ‘survival’한다는 논리는 ‘적자생존’이 아닌, ‘강자생존’의 논리이다. 이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가 혼합된 것일 뿐, 진정한 진화론의 모습은 아니다. 이광수는 약자가 강자의 노예됨은 “코가 눈 밑에 붙은 것과 같이 당연한 일”이라며 약소민족을 비웃었지만,⁶⁰⁾ 그의 논의의 초점은

59) 이광수(1936), pp. 422-427.

60) 이광수(1936), p. 423.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조선민족 스스로가 노력하자는 데 있었다. 조선인의 미래는 조선인에 노력여하에 달려 있음을 그는 거듭 강조한다.

주지하다시피, 진화론의 ‘적자생존’에서 ‘적자’, 즉, ‘the fittest’는 ‘강자’와는 다르다. ‘적자’가 ‘강자’가 아닌 예는 자연계에 매우 흔하다.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황야에서 꼭 날세고 힘센 토끼가 비굴하고 약해서 토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토끼보다 생존할 확률이 높지 않다. 힘세고 강한 토끼는 사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함과 빠름을 믿고 먹이를 구하러 동굴 밖으로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백악기 최고의 강자였던 공룡은 멸종했지만, 공룡보다 상대적인 ‘약자’였던 백악기의 여러 생명체들은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세계를 긴장시킨 에볼라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플루(감기) 바이러스보다 강하고 치명적이어서 감염체(감염자)를 치사에 이르게 하는 비율이 높았다. 에볼라는 바로 그 강함 때문에 자신의 숙주를 사망케 함으로써 멸종을 자초하였다. 의사들은 에볼라가 계속 생존하려면, 에볼라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처럼 약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즉, 생존은 ‘강자’가 아닌 ‘적자’의 몫인 것이다. 이런 예들은 ‘적자생존’에서 ‘적자’는 환경에서의 강한 적응력을 표현한 것임을 말해준다. 하지만 ‘적자생존’을 ‘약육강식’과 혼용하여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즉, ‘강자생존’의 논리로 왜곡시켜 이해할 경우, 생물학에서는 우생학을, 사회진화론에서는 파시즘을, 경제학에서는 신자유주의를 파생시키게 된다. 후쿠자와의 문명론이 호전적인 제국주의적 국가주의로 치달았음도 이를 잘 보여준다.

이광수의 진화론 이해는 일제국주의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국의 식민통치를 강자들의 약자에 대한 당연한 지배로 수용하는 듯한 논리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광수는 중국 상해에서 서방열강의 통치 하에 있는 상해의 중국인들이 스스로의 분투와 노력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았고, 로령에서는 자신이 조선인임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 그가 ‘약육강식’의 논

리가 지배하는 세계의 중심 동경에서 ‘약자’임이 분명한 조선의 운명이 조선인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다는 논리를 거듭 강조하면서 조선 청년들에게 상업 활동을 통한 자금력의 확보와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이상』에서는 조선민족 스스로가 민족 고유의 문화를 잘 보존하고, 이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가야 한다면서 문화론으로 조선의 당면과제를 수정하고도 있다. 이는 먹고 먹히는 국제정세 속에서 끝내 살아남는 ‘적자’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잘 보존하고 민족적 색채를 유지한 민족임을 중국과 러시아 여행에서 통찰한 그였기에 가능한 주장이었다. 1910년대, 제국주의가 발호하던 시기에 동북아와 러시아를 주유하면서 그는 조선의 자주적 독립의 가능성을 찾지는 못하였다. 독립을 말할 수 없는 처지, 즉, ‘강자’에 먹힌 ‘약자’ 상태에 있는 현금의 조선은 ‘적자생존’의 원칙에서 ‘적자’로서 끝내 살아남기 위해, 민족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직관적 통찰은 북방으로의 방향에서 얻은 수확이었다. 이로써 그는 문명론에서 문화론으로 전회할 수 있었다. 즉, 진화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그가 공부한 당시 동경의 근대 문명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가 상해와 해삼위를 주유하면서 체험하고 목도한 사실들에서 직관적으로 통찰해낸 약소민족의 진리는 ‘적자생존’의 ‘적자’로서 ‘문화론’적 차원의 민족보존을 위한 논리의 개발이었다.⁶¹⁾

61) 후쿠자와 유키치와 이광수의 문명론에 대한 인식의 편차를 연구한 정선태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은 일본이라는 근대적 국가의 독립을 보장받기 위한 국민기풍의 진작과 그 열정이 애국심으로 승화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던 반면, 이광수의 그것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이 불가능한 식민지 지식인의 그것이었기에 개개인의 행복 추구로 수렴하고 있다고 보았다(정선태(2004), 『이광수의 ‘농촌계발’과 ‘문명조선’의 구상』, 『상허학보』, 12호, 상허학회, p. 215). 김현주는 이광수의 1910년대 계몽적 활동의 목적은 ‘국가’가 상실된 조선을 근대적 ‘사회’로 재편하고, 조선 사람들을 근대적 사회구성원인 ‘개인’으로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이광수의 1910년대 ‘문화적 기획’들은 근대국가의 문명화 기획이 식민지적 형태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그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의 개략』에 비견

1875년 『문명론의 개략』을 펴낸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개화’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그는 문명의 세 단계를 ‘문명’, ‘반개’, ‘야만’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문명의 연령’이라 말하였다. 문명을 뜻하는 ‘시빌리제이션’(Civilization)이 라틴어 ‘키비타스’(Civitas), 즉, ‘국가’에서 유래한 점을 들어, 그는 “문명이란 야만무법의 고립에서 탈피하여 한 나라의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야만은 반개로, 반개는 문명으로 향하고, 문명도 시시각각 진보하는 과정에 있는 바, 그는 문명이 뒤진 나라가 문명이 앞선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은 현대의 진리라 말한다. 마지막 장에서 그는 “오늘날 일본인을 문명의 길로 나서게 하는 것은 오직 일본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서”라 말함으로써, 문명론의 목적을 국가의 독립을 위한 국민의 문명화로 설정하고 있다.⁶²⁾ 그는 약육강식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먹는 ‘강자’가 되느냐 먹히는 ‘약자’가 되느냐의 양자택일의 길밖에 없다는 극단적 논리를 펴고, 전쟁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일본은 과감하게 전자를 택하자면서 일본국민에게 전쟁을 설득한다. 즉, 그는 문명론에서 국가주의와 제국주의를 결합시키고 있다.⁶³⁾

될 만한 텍스트는 이광수의 문명론이 아니라 유길준의 『서유견문』이라고 주장한다. 논거는 양자의 집필 의도와 목적의 유사함이다. 19세기 말 미국을 둘러보고 돌아온 유길준이 쓴 『서유견문』은 근대적 ‘국민-국가만들기’로서의 문명론이었다. 반면, 이광수의 그것은 조선을 근대적(지역) 사회로 개편하고 조선인을 근대적인 개인들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문화적 기획’의 일환이었다. 1910년대의 조선은 ‘국가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관심이 전환된 시기였다(김현주(2005), 『이광수와 문화의 기획』, 태학사, p. 44, p. 104). 최주한은 1910년대 이광수의 텍스트들에 산견되는 문명론은 그가 문명 혹은 문화를 ‘민족적 생존과 번영을 꾀하는 방편’으로 간주한 가운데, 이를 적극 인식할 필요성을 인정한 논의로 평가한다. 그는 1910년대 이광수의 문명론이 국권회복에의 열망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는 이광수가 『學窓獨語』에서 중국 횡단 열차에서 만난 중국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최주한(2014), 『이광수의 문학과 윤리』, 소명출판, p. 145).

62) 후쿠자와 유키치, 정명환 역(2012),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 기파랑, p. 310.

63) 야스카와 주노스케, 이향철 역(2011), 『후쿠자와 유키치의 아시아침략사상을 묻는다』,

후쿠자와는 문명의 단계는 상대적이어서 특정 국가의 문명의 단계는 비교하는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지만, 나라들 간 문명화 단계에 따른 서열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⁶⁴⁾ 이런 논리라면, 일본의 피식민지인 조선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세계열강의 하나인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 엄청난 승리를 획득하기 전에는 국가 간의 문명화 단계로 인한 위계가 바뀔 수 없다면, ‘야만’의 단계, 즉,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문명을 지닌 식민지 조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광수가 둘러본 세계에서 어차피 문명은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에,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각 지역들은 조금씩 문명화의 길을 꾸준히 갈 것이었다. 오히려 문화는 지역적이고 로컬(local)한 것이기에, 특히 타국의 통치 하에 있는 나라는 민족문화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민족보존에의 길을 모색해 가는 것만이 미래의 사건일 수도 있는 독립에의 가능성을 말살하지 않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임을 직감하였는데, 1910년대 이광수가 중국, 러시아, 동경을 주유하면서 얻은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다.

6. 1910년대 이광수가 해외에서 본 문명, 조선에서 꿈꾼 문화

이광수가 상해, 북경, 블라디보스톡, 북만주, 치타, 동경을 여행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서구적 근대문명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들 간에는 발전단계에 따른 서열화된 위계가 존재하며, 동양은 서양에 비해, 조선은 일본과 러시아는 물론, 당시의 중국에 비해 낮은 문명의 수준에 있다는 것, 현재 조선으로서는 자주독립을 말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싫든 좋든 조선

역사비평사, p. 97.

64) 후쿠자와 유키치, 정명환 역(2012), pp. 26-29.

인이라는 것, 현재 일본근대문명의 위력은 서구열강의 그것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것, 이에 조선민족은 ‘약육강식’의 논리에서는 ‘약자’지만 ‘적자생존’의 원칙에서 ‘적자’로 살아남기 위해 고유의 문화적 색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에 모아진다.

해외체험에서 획득한 이런 인식들은 「우리의 이상」과 「농촌계발의견」에 잘 반영되어 있다. 「우리의 이상」(『학지광』, 1917.12)의 논점은 세 가지다. 첫째, 경술년 8월 ‘일한합병’ 후, 조선은 몰이상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를 방지하면 조선은 정신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민족적 이상의 수립이 급한데, 그 답은 ‘신문명과 신문화의 산출’에 있다. 둘째, 현재의 조선은 주권을 지닌 자주국가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보다,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상의 보장들, 즉, 생존을 위한 경제력과 근대적인 문명의 향유에 매진하여야 한다. 민족의 역사적 지위는 정치사적, 문화사적인 것, 2가지가 있는데, 정치사적 지위는 변화가 무쌍할 뿐 아니라, 현재는 조선의 그것을 논할 수 없는 시점이다. 세계사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문화사적 성취가 정치사적인 것보다 오히려 클 수 있다. 셋째, 세계문화의 중심은 17세기에는 영국, 18세기는 불란서, 19세기는 독일이었으나, 20세기는 동양, 그중에서도 동서문화의 융합을 내세운 일본이 될 것이다. 현재 일본은 20세기의 희랍문화에 해당하는 지위, 즉, 세계문화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조선도 민족 단위에서든 개인 단위로든 세계문화에 기여함으로써 생존보람을 찾자는 것이다.⁶⁵⁾ 즉, 이광수는 조선은 국가 단위의 독립된 문명을 가질 수 없기에, ‘문명론’이 아닌 ‘문화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10년대 중반 ‘문명론’을 주장하던 그가 이렇게 ‘문화론’으로 전회한 것은 지식체계로서의 진화론 습득이 아닌, 방랑과 유학기간 등의 해외체류 경험에서, 그가 현 정세 속에서 ‘약자’인 피식민지 조선이 결코 ‘강자’가 될 수 없

65) 후쿠자와 유키치(2012), p. 249.

는 바에야 ‘적자’로서 ‘생존’을 도모함만이 결국에는 ‘진화’ 혹은 ‘발전’의 주체가 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함을 간파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자 료】

- 『매일신보』, 『삼천리』, 『영대』, 『조선일보』, 『청춘』, 『학지광』.
이광수(1986), 『춘원문학』, 성한출판주식회사.
_____(1979), 『이광수 전집』, 우신사.
_____(1962), 『이광수 전집』, 삼중당.

【논 저】

- 김경남(2014), 『이광수의 작문과 기행 체험의 심미적 글쓰기』, 『어문론집』 58호, 중앙어문학회.
_____(2013), 『1910년대 기행담론과 기행문의 성격』, 『인문과학연구』 37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경미(2012), 『이광수 기행문의 인식구조와 민족담론의 양상』 62호, 『한민족어문학』.
김원모(2015), 『한국 민족운동의 시단』, 『춘원연구학보』 제7호, 춘원연구학회.
김현주(2005), 『이광수와 문화의 기획』, 태학사.
박계주·곽학송 공저(1962), 『춘원 이광수—그의 생애·문학·사상』, 삼중당.
박종화 외 3인(1979), 『이광수전집 별권—화보·평전·연보』, 우신사.
박진영 편(2011), 『신문관 번역 소설 전집』, 소명출판.
심원섭(2014), 『‘일본제 조선기행문’과 이광수의 『오도답파여행』』, 『현대문학의 연구』 52권.
유길준, 허경진 역(2004), 『서유견문—조선 지식인 유길준, 서양을 번역하다』, 서해문집.
정선태(2004), 『이광수의 『농촌계발』과 ‘문명조선’의 구상』, 『상허학보』 12호, 상허학회.
정일성(2005), 『일본군국주의의 괴벨스: 도쿠토미 소호』, 지식산업사.
최주한(2014), 『이광수의 문학과 윤리』, 소명출판.
_____(2014), 『『경성일보』라는 매체와 이광수의 일본어 글쓰기: 『경성일보』 소재 『차중잡감(車中雜感)』(1918) 연작기행문에 대하여』, 『근대서지』

10호, 한근대서지학회.

_____(2014), 『한국문학의 언어횡단적 실천과 동아시아: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와 『오도답파여행』』, 『민족문학사연구』 55권.

후쿠자와 유키치, 정명환 역(2012),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 기파랑.

야스카와 주노스케, 이향철 역(2011), 『후쿠자와 유키치의 아시아침략사상을 묻는다』, 역사비평사.

원고 접수일: 2015년 3월 13일

심사 완료일: 2015년 4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5년 5월 1일

ABSTRACT

A Study on the Foreign Travels of Lee Kwangsoo in the 1910's

Kim Mee Young*

This article aims to reveal the main achievement of Lee Kwangsoo's travels abroad in the 1910's. Lee Kwangsoo traveled to Shanghai, Vladivostok, Cheeta, and North Manchuria in 1913~1914. In those travels, he observed the grades of rank, catching up with how much these nations had been modernized. The nations of the East could not compare to those of the West in terms of the degree of civilizedness. Japan was observed to be more developed than the other eastern countries at the time. Russia was also more civilized. But China was seen to be only half-civilized and Joseon yet to be civilized. Lee Kwangsoo regarded the Joseon people to be very poor and unenlightened, and the Joseon intellectuals to be very lazy and emersed in violent disputes regarding party politics. Thus, he did not find any kind of hope for Joseon to remain an independent nation in the near future. In 1915~1918, Lee Kwangsoo lived in Tokyo due to his studies. During this time, his second period of study abroad, he observed how great the Japanese power of civilizedness was, as well as how high the Japanese grade of civilization was, compared to Joseon. He had been

* Liberal Arts College, Hongik University

impressed by Fuguzawa Yugichi's theory of civilization and evolutionism. But it is in Russia that he realized the fate of the Joseon people. This is why his theory of civilization was transformed into a theory of culture for Joseon, as a neighbor of Japan in those times. He believed that if the independence of Joseon could not be ensured, then at least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erve the identity of its people by maintain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Joseon culture. These thoughts were the results of his travels abroad in the 1910's.

